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갈보리의 십자가를 거쳐야만 성령님을 만납니다!

다음 주일(27일)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즉 부활 후 7번째 주일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은 부활 후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五旬節)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향하여 구체적인 선교를 시작할 것이 바로 이 때부터입니다. (행 1:8) 따라서 이 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또한 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사실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나심에도 성령님은 관여하셨습니다. (마 1:18)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마 3:16)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님은 동행하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진부터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행 2:1~4)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심령에 보혈이 충만하여졌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행 2:13)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와 열심만으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흔적이 있어야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딤후 3:5) 특히 성령강림을 기념하며 다음 주일 예배 시에 <거룩하시다>를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찬양을 충분히 연습한 CD 발매 중, 사무국 문의하시기 바라며 약보는 주보에 삽입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22일)

저녁 7시 30분 갈릴리홀

“본도와 다름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후 2:8) 바로 지금이 모든 교만과 편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교구가 25개로 개편된 후에 모이는 첫 기도회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들이 먼저 바혈로 정함을 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중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살전 5:25)

2007년 제2차 청지기운전

일시: 6월 15일 저녁 7:30(금요찬양팀회시)

주제: 서로 사랑하자(요일 4:7-11)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성령의 말씀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 (요 14:16,17)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요 14:6)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고후 4:13) 이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 (롬 1:17) 성령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시다 히브리스 10장 29절 말씀은 성령을 일컬어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른다. 성령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바르게 사는 법을 말하며 십자가를 뒤로 내팽개쳐 버린다. (마 12:31)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진실하게 감사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은혜를 참으로 알고 체휼하면, 누구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령을 일컬어 '성결의 영'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이시다. 우리는 은총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벧전 1:16)라고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명령이며 두려운 명령이다. 우리 중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거룩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신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에베소서 1장에는 놀라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17,18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휼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험하게 걸어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골 1:9) 우리 모두 이 길을 걷기를 바란다. 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능력있게 증거하도록 힘을 주시는 영이시다. (행 1:8)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케 된다. (딤후 1:7) 이 간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생기 있고 흥미진진한 삶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시다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벧전 4:14; 고후 3:18)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 3:2) 땅엿 것들은 모두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뿐이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좁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결함이다. (딤후 2:20,21)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게 하라. “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PENTECOST

⁽¹⁾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²⁾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³⁾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⁴⁾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ts 2:1~4)

Today's Bible verse,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if it actually happened to you, is truly amazing. It is an event that we refer to as Pentecost. This particular Day of Pentecos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church. Prior to this special day, Pentecost represented the Jewish Feast of Weeks. It was the fourth of the annual feasts of the Jews, after Passover, Unleavened Bread, and First Fruits, and came fifty (50) days after First Fruits. It celebrated the wheat harvest. (Ex. 34:22) It was a glorious day of thanksgiving that God commanded His people to observe. (Deut. 16:12) Whereas Jewish believers gathered their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 Christian believers, for the very first time, received their first fruits from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the Holy Spirit came down and gave Christians freedom from sin, death, and hell,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2 Cor. 3:17) A new beginning took hold and people of grace were freed. John 16:8-11 says of the Holy Spirit, "And He, when He comes,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concerning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and concerning righteousness, because I go to the Father and you no longer see Me; and concerning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judged." This was the Pentecost blessing, first fruit of the Holy Spirit for believers in Jesus Christ.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God's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works shined together on this very special Pentecost Day.

What exactly happened at this feast of Pentecost? Acts 2:2 says,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 word "suddenly" is used to describe the start of this event, but it was not actually sudden in spiritual time. God's people had no preparation time, no plan, but "suddenly" the Holy Spirit came from heaven. From a heavenly perspective, everything occurred exactly in God's time and exactly God's way. There was nothing sudden, but from a human perspective things appeared to happen right away. God chose the place, the upper room in Mark's home, and He chose the group of people who were there in faith to start His church, the body of Christ. God's biggest works come in small things, not the glamorous, huge, and popular things.

In the church, the Holy Spirit works mysteriously. He does not reveal His time, place, or methods. He handles God's plans, and God's people see the afterward results, never the beforehand arrangements. Recently in our church, some pastors, elders, and board of directors want to control, analyze, and make certain objectives and systems. Indeed, human nature pulls people to want to know everything ahead of time, and the problems arise when good people with good intentions start asking questions like, how is God going to lead us, how is God going to do this and that. There is no faith! Adam and Eve knew which tree not to eat from because God told them. They knew and that was the problem. If people do not know, and really rely on God's hands, then things go smoothly. In other words, we cannot understand God through our culture and language but through His Spirit we can spiritually let God handle everything in His time and place. God wants to move, He want to control, we just need to let Him. God wants to touch our lives, and the Holy Spirit wants us to rely on Him.

Too many church people want to know "what's up" with God, meaning they want to know what He is doing and why. This mindset leads them

quietly away from Jesus Christ and toward their own desires and ways. A systematic church community tries to make perfect systems their way. Such human organizations hold the Bible in one hand and in the other hand hold their own rules and methods. They try to put their hands together in unity, so that everyone will be happy. They go with what is popular and their biggest concern is success. Unfortunately, this system leads away from the cross. Romans 8:26&27 reminds us, "In the same way the Spirit also helps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how to pray as we should,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and He who searches the hearts knows what the mind of the Spirit is, because He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When you rely on the Holy Spirit, He will lead you every time. If this church relies on the Holy Spirit, God will definitely move, but if this church tries to run things by the Board of Directors, senior pastor, elders, or whoever, then you might see success with human eyes but I guarantee you that this church will be spiritually dead.

I love the rushing wind, the transformation of speech, and human beings talking to others in languages they never learned to speak. You and I know that no one can learn to fluently speak a foreign language in one day, yet alone in one moment, but suddenly men and women began talking to the world. God'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ed in Jerusalem for Pentecost. The Holy Spirit used 120 of them to touch all the others,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v. 4) The 120 knew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pirit touched them first. I'm telling you my friend that this is no accident. This is the birth of the body of Christ. This is a real picture of an absolutely wonderful harvest feast. The temple bell rang for the feast of the Old Testament, the first fruits of the harvest, and opened its gates. Then God rang His bell of salvation. Forget the past, new things have come. The ring of salvation came and will continue until Christ's return. Grace upon grace is here for those who wish to receive it. It is available for every individual, like you and I, because the Holy Spirit brings us new life. The grace of God has no limitation.

Right before He ascended, Jesus told His disciples,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Acts 1:5) He also told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7&8) On the Day of Pentecost, this became history. The new church began, and it reached from them to you and me here today. With the Holy Spirit we have new life. Those who hear the gospel preach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re pierced to the heart. (Acts 2:37) They are willing to give up their old self and seek real truth.

My dear friend, do you have the Spirit of Pentecost in your heart? Acts 2:21 says, "And it shall be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re you saved? Is the Holy Spirit dwelling within you? Are you happy and rejoicing with new life? If not,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2:38) ■

다음 주일 설교

오순절 성령강림

- 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②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③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④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1~4)



김성곤 목사

만일 정말로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성령강림'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성령강림절이라는 이 특별한 날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칠절절을 대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곧 유대인의 연례적인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 네 번째 축제일로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출 34:22) 곧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추수감사일이었던 것입니다. (신 16:12) 유대인들이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모았던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죽음,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17)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은총의 자녀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6:8~11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죄에 대하여와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에 대하여와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심판에 대하여와 함은 이 세상 임금인 심판관 받았음이니라" 이것은 오순절의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첫 열매였습니다. 신구약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담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특별한 성령강림절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

이 오순절이라는 축제일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죠? 사도행전 2:2은 전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에서 "홀연히"라는 말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간에 있어서 그것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준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그 장소로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그곳에 믿음으로 모여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그 곳 휘황찬란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성령님

교회 안에서 성령은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분의 시간과 장소, 방법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에 이러한 결과들을 볼 뿐, 결코 그 계획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교역자와 장로 그리고 행정위원들은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고 분석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애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한 의도를 가진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은 참으로 믿고 있는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나무의 싹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된 무리 지식과 언어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택하신 곳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맡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시기를 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매우 많은 교도인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소리 없이 그들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의 욕망과 방법들로 향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완벽한 조직을 갖추어 잘 운영하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교회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들만의 규칙과 방법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함께 연합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의 발은 인기 있는 것만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성공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조직은 성도들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8:26,27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 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은 배운다 우리를 인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혹나 답답 목사, 장로들 혹은 그 누군가에 의해 교회 일들을 운영해 가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확실하건대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급격한 바람, 언어의 변화, 한번도 말해 본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루만에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순간, 아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은 120명의 성도들을 사용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12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성령은 먼저 그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말로 놀라운 오순절의 궁극적인 실제 모습입니다.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을 알리는 성전의 종이 울리고 성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종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종은 이미 울렸고 이 종은 그리스도께서 제임하시 때까지 계속 울릴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5)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너희가 능함을 내가 예루살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7,8) 이 말씀은 오순절을 시작하는 때에 역사하였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령의 선물으로 선포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열림을 받습니다. (행 2:37) 그들은 기꺼이 옛 자아를 내리고 참 진리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살아계십니까? 사도행전 2:21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너희"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새 생명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희게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아멘. ■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진 2교구



정현수(장로, 제2교구장)

의 신부라.” 찬송가 242장의 가사처럼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 위에 세워진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과 주의 은총만이 가득한 교구가 되기 위하여 일꾼을 비롯한 모든 교구 식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특별히 교구 개편으로 새롭게 한 식구가 된 이전의 19교구 성도들과 함께 14세 이하의 어린 영혼들을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고자 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2교구는 역삼동 일부 지역으로 국기, 테헤란, 한서, 영동, 개나리, 진달래, 성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377세대 839명의 성도들이 8개 지역과 24개의 구역과 8개의 남성 구역과 7개의 전도회로 구성되어 새롭게 세워진 85명의 일꾼들이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2교구는 2007년 예배 기원 찬송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참 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셨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눅 19:10)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사역의 순간에도 결코 소외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눈먼 소경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교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교역자, 장로,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 모든 일꾼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압니다. 또한 자신의 연합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한 2교구가 ‘세상’이 아닌 ‘영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2교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가의 다락방 내부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시므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최초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에 대해 언약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신 자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마 16:16)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다.(엡 1:22,23)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자들만 주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전 1:2)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들에게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마 28:19) 그런데 이 사명은 연합한 교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교회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약속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열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행 1:12~15, 2:1~4)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였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했고 주님의 이름만 자랑했다.(행 1:32~36)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였으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행 2:42~47)

그런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복음을 증거했으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선포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라”(행 2:32)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무서운 박해가 있었으나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교회였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했다면 기꺼이 순교했다.(행 7장)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들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빠르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그 어떤 세상도 감히 감당치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

우리는 행복한 증인들!

17교구 1팀

- * 어떤 병든 노인에게 전도할 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복음을 경청할 때는 그곳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화 집사)
- * 도착한 다음 날 새벽에 스피커를 통하여 사원에서 울려나오는 불교 주문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침울함이 어두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상의 도시가 성령 충만한 도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봉순 은목 안수집사)
- * 목척지로 향하는 입구에서부터 우상이 세워져 있고 집집마다 우상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병든 노인이 복음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최석수 집사)
- * <예수 사랑 하심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면, 주저주저하던 어린아이,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수줍은 듯 부르다 곧 열심히 따라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음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며 우리 역시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한애현 권사)
- * 격정과 두려움이 앞섰으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복음을 들고 기뻐하던 사람들, 하던 일들을 멈추고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쁜 마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홍자 권사)
- * 이웃의 가족까지도 함께 모여 전도지를 보고, 읽었으며, 찬양과 율동을 통해 마음이 열리어 기도문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외에 구원받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듣는 자들의 순박하고 진지한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웠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옥자 권사)
- * 예약된 기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기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던 중에 한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처음에 없었던 한 운전기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것도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생각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이성섭 안수집사)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한 작은 마을로 가는 도중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근처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덕에 작은 분교가 있었습니다. 책상도 결장도 없는 한 칸의 교실에서 손가락 한 마디의 작은 연필로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그 곳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를 안내하는 운전기사는 신당 앞에서 참배하고 운전 중에 우상 사진을 의지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놀라게도 그는 바빴습니다. 운전기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여 우리는 그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동 중에 길가에서 축조전도를 하는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식당에서도 역전 광장에서도 전도지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율동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찬양을 하며 그들을 끌어안아 주니 기뻐했습니다. 거리에는 먼지는 물론 쓰레기도 많았고, 떠돌이 길인도 많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보여주는 현장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영혼을 사랑하시기께 우리를 보내셨고 복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사로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길 기도했습니다.

임남빈(집사, 7교구)

눈물은 내가 받은 선물

주님이 내게 부락하신 일, 천사로 호도할 그 일! 매월 둘째 주 교회주변 전도를 하는 내 발걸음에는 나같은 죄인을 복음의 전도자로 써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늘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는 내 매마른 가슴 때문에 매번 회개하는 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처음엔, 요즘처럼 인터넷과 핸드폰 문자로 전도할 수 있는 세련된 방법을 뒤로 하고 미련하게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가며 "안녕하세요! 충현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며 전하는 입술도 민망하기 그지없고, '이런 방법으로 전도가 통할까?' 하는 회의적인 맘도 있었다. 또한 우리가 정성스럽게 전해온 전도지가 골목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 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찮게 취급받으며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다. 그러나 이런 속상한 나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루만지시며 점차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도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오랜 시간을 그 잃었던 영혼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말한다. "아! 바로 이거로구나!"

그 동안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따르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나의 담당 지역인 역삼동 609번지 일대는 마치 내가 사는 곳인 양 친근해졌다.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주변 전도를 하였던 주차담당 아저씨, 꽃집 주인, 타이어 수리공들도 이런 반갑게 인사한다.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는 그분들 가운데 몇몇은 직접 교회에 등록하셨다. 이들을 보며 '어찌이 일을 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배척하며 잠잠한 취급을 하는 영혼들을 만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안타까움의 눈물이 난다. 이 눈물로 주님이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 내게 선물로 주신 것기에 감사하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전도 방법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충현의 교회주변 전도가 정말이지 참 좋다.

안정희(집사, 6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7일(월) ~ 5월 15일(화)	16 · 24교구 연합	김철환
5월 11일(금) ~ 5월 19일(토)	9 · 10 · 16교구 · 티고 연합	전성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6일(수) ~ 5월 24일(목)	6 · 7교구 연합	이상직
5월 16일(수) ~ 5월 25일(금)	3 · 1 · 2 · 4교구 연합	이부성
5월 17일(목) ~ 5월 25일(금)	14 · 15교구 연합	류기명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토)	정영미 · 전혜영 (메디바)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1일(월) ~ 5월 1일(금)	18 · 20교구 연합	김영현
5월 23일(수) ~ 5월 30일(수)	19 · 2 · 10 · 18교구 연합	안준모
5월 23일(수) ~ 5월 31일(목)	17 · 8교구 연합	최희경
5월 24일(목) ~ 6월 1일(금)	10 · 9교구 연합	정철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1989년에 충현교회로 오게 되었다. 교회를 잘못 옮겨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뒤라, 사십 일 작정기도 끝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두 번씩이나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 심지어 싸움들 때문에 한때 교회를 멀리하고 방황하기도 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짝 삼아 내 멋대로 살면서 점점 사망의 길로 빠져들었다. 친정 어머니는 “저 영혼 불쌍해서 어찌나?”라고 하시면서 우셨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지현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하셨다. 그러면 저는 “주일 지키고, 수요일 나가면 됐지”하면서 마구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다. 그리고는 “열심히 다니면 뭐가 달라지는 데!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더 잘사는 이유는 뭘때?” 하며 반항했다.

이렇게 방황하던 2005년 어느 날 밤, 꿈 속에서 들은 희미한 한 음성은 죄로 가득찬 나의 악한 모습을 깨트려냈다. 이후 죄로 가득했던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운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이었다.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실 예수님께 진실로 회개하오다. 또한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말씀 그리고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찬양을 통하여 매마른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 사탄의 예수님은 내 가슴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오직 참 생명은 주님 밖에 없사오며 참 평안을 주신 분도 예수님뿐입니다. 이제 남은 삶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멘.

김지현(집사, 8교구)

고만한 죄인에게 베푸신 은총

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장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 사업의 부도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다. 그 때에 예수님은 내 손을 붙들고 나를 만나 주셨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내 영혼을 깨웠다. 그리고 나는 나의 본 모습을 깨달았다. 허물 많은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슬픔 중에 염마로 행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만한 이 죄인에게 십자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주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할 수 없는 은

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였고, 무지한 이 죄인이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무릎 꿇게 하셨다. 주 떠나시면 내 생령 헛되며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

수 그리스도도가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

린다.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니 그러즉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

랑하시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는

말씀이 내가 드리는 유

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

망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날

마다 죽도다.” 항상도 나는 예수

님께 진실로 고백한다.

김국원(집사, 1교구)

사랑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아서 겨우 저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갈 수 있게 가르

쳐 주시는 것 참 감사해요. 한 주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항상 전화 심방해주시는 것

도 감사해요. 저는 한 통화의 전화를 받는 거지만 선생님님 매주 7통의 전화를 하시며

일일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웃으시면서 힘들지 않으신 모습이에요.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 해 주시고 기

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성경 말씀도 우리들 귀에 꼭꼭 들어오게 해 주시려고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 주시잖아요. 성경 구절도 따로 적어 주시고...

제가 정말 정말 감사했던 건 저를 성경학교 때였어요. 제 동생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엄마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갈 수가 없었을 때 선생님께서 제가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

도록 직접 데리고 오고 가요 해 주신 것 말이에요. 선생님! 그제 예수님 마음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예쁜 자녀로 자라나도록 기도할게요. 선생님, 제가 자라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또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드려요. 선생님 사랑해요!

최서연(초등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짜예요. 맞아요.” 저의 신앙생활 30여 년 중에 2년 전부터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저의 열심과 노력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항상 분주하여 내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참 믿음없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치킨 마음을 이끌고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고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가면 오로지 자기의 것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씀 때문에 더욱 영적인 중압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이것 저것 핑계를 대며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만을 앞세우며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여니 은혜는 물결듯이 저를 가득채웁니다. 고만하였던 저의 악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간충현》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은혜의 샘에 완전히 빠져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했던 제 입술에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예수 더 많이 원하네 ~ 성령이 스승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안에 오셨습니다. 습관처럼 들었던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죽은 생명이 소생되었습니다. 마른 뼈에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 살아났습니다. 우물거는 수가성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천히 십자가 은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은총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원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시며 이제 저를 완전히 지배하셨습니다. 십자가 은총의 복음을 깨닫고 25년 동안 한평생 전도를 못하였는데 작년에 9명을 전도하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제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서인준(집사, 14교구)

교회 담방 사랑안내부

십자가를 향해 있는 차량 안내봉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교회를 빠져나가는 차량과 교회로 들어오는 차량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안내부원들이 있다. 이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봉사자들이 아닌가 싶다.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안내부원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았다.

* 간혹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가장 먼저 저들에게 문의를 해서 교회를 안내하고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감사하건지요. 지하2층에서는 자동차 가스를 많이 맡아 됩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비 등 날씨로 힘들 때도 있지만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었니까요. (김종민 안수집사, 지하2층 주처장)

* 인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차량 안내부의 지시에 도움을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승진 안수집사, 선교관)

* 차량안내부의 안내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가는 차량을 보면 맘에 상할 때도 있지만 저 같은 죄인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김재학 집사, 후문)

* 비가 올 때면 한 손으로 우산을 들어야 해서 조금 힘들게 느껴지지만 항상 먼저 인사를 하며 웃음으로 성도의 고제를 할 수 있는 이곳이 정말 행복합니다. (박호영 안수집사, 후문)

* 제2교육관 앞의 통로는 주일 3부 예배 시에 주차 공간이 없을 때에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도 주차하겠다고 때를 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정중히 입장을 난처합니다.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제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요! (김종성 안수집사, 제2교육관 입구)

* 제2교육관을 주차하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3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는데 금요찬양집회 시에는 70여 대밖에 들어오지 않으니, 많이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당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2교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김명숙 안수집사, 제2교육관 입구)



* 수신호에 잘 따라주시고 목격자들 광범위로 신호에 주시면 안내해 드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섬길 수 있고 사함으로 성도들과 고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김영민 집사, 복지 관문 사기터)

* 주일 분당 앞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인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께서 주차를 하겠다고 언성을 올릴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매주 봉사할 때마다 제게 건경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문호석 안수집사, 분당 앞)

* 동문 건너편 예배와 맞은편에 세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통 3부 예배 때 세가지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비워두고 있는데 2부 예배 때 주차된 차량이나, 물려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정작 세가지 주차를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 3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계속 많은 차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안내부 봉사를 하며 제가 정말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정말 은혜입니다. (김종호 안수집사, 세가지 관문)

* 간혹 구만년 차의 타이머를 교체해 주기도 하는 등 성도들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제겐 큰 기쁨입니다. 차량안내부의 다양한 연령층의 봉사자들과 고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가끔 협조를 전혀 안 하는 종지자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요. (신원호 집사, 동문)

* 6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경을 주셔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 인원에 비해 차량이 많으니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진 집사, 지하2층 주처장 앞)

* 만지 않던 제가 전도반에 등록한 뒤 처음으로 봉사를 시작한 곳이 차량안내부였습니다. 그 뒤 20여 년이 흘렀네요! 차량안내부에서 봉사를 하며 저 믿음도 커져갔으니 제게 건경을 주실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김공규 안수집사, 지하2층 주처장 앞 사기터)

* 오늘 3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있던 차량이 빠지지 않아 모든 차가 돌아서 지하 2층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의 맘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큰 소리도 못 냈습니다. 정말 통로 주차를 할 때면 일찍 나오셔야만 다른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성도님들이 이기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 시에 정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면 주차를 하셔야만 배터이 닳아지지 않습니다. (최진성 안수집사, 지하2층 주처장)

주일에 이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다 보니 잠깐이었지만 이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체험하였다. 특히 "쓰밌만"이 그 하나로 정말 감사하다! 라는 봉사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들의 봉사가 결코 억지가 아님을 깨울 수 있었다. 그렇다! 차량안내부원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차량 안내봉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였다!

(편집국)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일 새벽마다 저를 깨워 주셨기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에 놀려 힘들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찬송가를 펴 몇 곡의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데,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의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두려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기가 얼마 품에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품에 안기어 저를 무겁게 하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빌립보서 말씀처럼 평안을 주셨습니다. (빌 4:6,7)

큰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시험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잘 하거나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저의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게 해 주셨고, 걱정하며 한숨을 쉬던 제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저와 늘 동행하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의 앞길에 길이 열려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를 하면서 처음엔 저의 의지로 새벽에 일어나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일 새벽마다 저를 깨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 첫 예배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찬양을 위해 일 주일 동안 찬양을 생각하고 부르면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기대하게 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상황에 맞는 찬양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지혜(집사, 가브리엘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는 주일 11:00부터 7:00 예배 시에 찬양합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26	유현진	3 대학부 김재현(20)	851	이형숙	17 청년2부 신명환(14)		
827	박익환	24 청년2부 김태권(17)	852	김영일	21 청년3부 양계관(21)		
828	윤은혜	23 청년2부 박숙민(15)	853	김영준	7 청년1부 김현근(10)		
829	권순애	11 청년1부 유상민(21)	854	식광원	18 고등부 박종환(20)		
830	한복숙	13 청년3부 김희재(13)	855	최혜정	22 청년1부 함유선(10)		
831	김연진	13 청년2부 김현진(13)	856	안건우	14 청년2부 이준희(15)		
832	김주환	7 소양부 권병식(18)	857	김성근	6 청년3부 최혜선(10)		
833	배상현	6 청년2부 이진규(16)	858	박석재	23 청년3부 박희성(8)		
834	이은고	2 대학부 이희연(21)	859	김주서	17 대학부 송혜자(20)		
835	송규문	2 청년2부 한민규(24)	860	하종민	1 청년1부 한현우(1)		
836	김명자	2 청년2부 한민규(24)	861	최희연	1 청년1부 임문자(1)		
837	박익환	24 청년2부 김태권(17)	862	김정현	17 청년1부 이일선(10)		
838	조아라	19 고등부 박성진(19)	863	김정현	11 예배대부 최희정(20)		
839	김영준	6 청년2부 이희연(21)	864	라신아	25 외선부 배재환(10)		
840	최희선	12 청년2부 박익환(12)	865	홍미	25 외선부 권지현(20)		
841	배영규	5 청년2부 채종호(14)	866	박은은	25 외선부 김대호(2)		
842	서학찬	8 청년1부 김경민(21)	867	김종현	25 외선부 임태환(20)		
843	오영진	17 청년2부 정민아(18)	868	목지아	25 외선부 최재환(20)		
844	이은우	6 중등2부 최유정(12)	869	신아	25 외선부 최지현(20)		
845	송영준	6 중등2부 문민정(23)	870	이희연	25 외선부 이종진(20)		
846	구영호	5 청년2부 박익환(12)	871	신아라	25 외선부 이종진(20)		
847	김희영	5 청년2부 박익환(12)	872	이성미	17 청년3부 송지현(10)		
848	전진호	17 청년2부 김태권(17)	873	하 현	16 청년1부 최희정(17)		
849	최희선	11 청년1부 이희연(21)	874	김다혜	25 외선부 신승호(12)		
850	송영준	17 청년1부 신명환(14)					

*송영준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